

23

제11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대한외국어대학	성명	한글	주동양	생년월일	1997년 11월 25일
	영문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영문	Zhou Dongyang	학년	4학년

소 중 한 이 웃
 누 구 나 자 신 만 의 함 으 로 이
 수 없 는 것 처 럼 우 리 모 두
 사 람 다 른 사 람 의 도 움 이 필 요 하 다 . 우
 리 가 어 려 운 상 황 에 처 했 을 때 , 친 구 들
 이 우 리 에 게 도 움 을 주 기 는 하 지 않 이
 웃 도 항 상 우 리 를 도 파 준 다 . 1 먼 친 척
 보 다 이 웃 이 더 낫 다 ' 는 옛 말 이 있
 미 이 웃 문 우 리 에 게 마 주 중 모 한 존 재
 미 다 . 우 리 는 이 웃 과 서 로 가 서 로 들 도
 와 주 면 서 인 연 을 맺 게 되 고 값 사 을 매 권
 수 없 는 미 웃 간 의 사 랑 이 생 기 게 된 다 .
 그 러 모 로 우 리 는 미 웃 을 소 중 히 여 겨 야
 한 다 .
 미 웃 이 라 는 단 어 를 색 감 로 표 현 을 한
 다 면 나 는 노 란 색 을 선택 할 것 이 다 . 왜
 냐 하 면 노 란 색 은 항 상 무 리 에 게 따 랑 한
 느 낄 을 주 기 때 문 이 다 . 미 웃 이 도 노 란 색
 과 마 찬 가 지 우 리 에 게 따 랑 함 을 주 곤
 한 다 . 사 실 이 웃 이 라 는 주 제 를 따 보 는
 순 간 , 나 는 어 려 운 때 우 리 별 집 의 한
 머 너 가 생 각 이 났 다 . 그 한 머 니 는 키 가
 작 고 머 리 가 온 통 하얀 색 이며 나 미 가
 꽤 많 은 신 분 이 다 . 내 가 한 5 살 때 ,
 고 모 가 입 신 문 했 기 때 문 에 나 의 친

제11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성명		한글	주동양	생년월일	1997년 11월 25일
	영문	Daeje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영문	Zhou Dongyang	학년	4학년

할머니가 고모를 돌봐 주기 위해서 고모네
 집에 갔다. 어머니가 아버지는 직장생
 활이 바빠서 낮에 돈을 봐주사람
 이 없었따. 열집의 할머니 미상황
 을 알게 된 후,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따고 나의 부모님에게 말하셨다. 그래
 서, 그날부터 할말동안 부모님이 출근하
 면 나를 그 할머니의 집에 보내곤 했
 다. 내가 그 할머니 집에 갈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나에게 맛있는 과자와
 신선한 과일을 주셨다. 그리고 나와 같
 미 소파에 앉아서 나에게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 해 주셨다. 지금 그 동화의 구
 체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못하지만 나
 는 그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생생
 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 열집 할머니
 가 나에게 주신 사랑은 마치 나의 친
 할머니와 같다. 중학교때의 어느 날, 열
 집 할머니가 중성심병에 걸렸기 때
 문에 명령원히 미세상을 드러냈다. 나는
 미소색을 듣고 눈물이 주할수없이
 평평내렸다. 비록 이곳 할머니가 떠나
 셧지만 나는 사랑과 따뜻함을 명
 원히 잊지 않기로 명심했다.
 이 못미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을

제11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 번	학 명	대한외국어대학		성 명	주동양	생 년 월 일	1997년 11월 28일
	영 문	Danm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영 문	Zhou Dong Yang	학 년	4학년

뻘만 아 나라 우리 등 진 작 시절 수 있다
 나는 테헤비전에서 이 러 한 이 야 기 를 본
 적이 있었다. 한 시 각 장 애 인 은 때 인
 밤에 동 네 의 충 입 구 에 등 불 을 등 고
 게 접 에 돌 아 간 이 웃 들 에 게 길 을 비 추
 누 것 이 다. 그 리 고 가 람 그 는 거 문 고
 타 서 이 웃 미 에 게 변 주 해 주 기 도 한 다.
 기 자 가 그 에 게 물 었 다. ' 누 이 보 이 지
 양 면 서 왜 등 불 을 등 고 다 른 사 람 에
 게 길 을 비 추 어 주 실 까 요 ? ' 해 공 재 로
 연 주 를 하 시 는 거 예 요 ? ' 그 시 각 장 애
 인 은 미 령 게 대 답 했 다. ' 나 는 잘 보 이
 지 않 지 만 이 웃 들 에 게 도 움 이 되 고 싶
 어 요. ' 누 것 에 도 움 이 사 람 들 이 하
 루 의 각 각 생 활 미 꿀 나 고 마 음 이 지 쳤
 잘 아 요. 나 의 등 불 을 보 고 거 문 고 소 리
 를 들 으 면 서 마 음 이 편 해 질 거 예 요. ' 자
 신 이 빛 을 보 이 지 않 지 만 그 는 자 신 의
 행 동 을 통 해 동 네 의 이 웃 들 에 게 빛 을 주
 고 그 들 의 마 음 을 진 작 시 켜 다. 스트 레 스
 때 문 에 기 분 이 무 울 한 미 웃 들 이 그 의
 등 불 을 보 면 서 마 음 속 에 빛 이 나 시 샘
 길 것 이 다. 그 리 고 나 시 시작 하 는 용 기
 도 얻 게 될 것 이 다. 미 웃 각 의 소 소 한
 행 동 하 나 , 간 단 한 말 한 마 디 , 우 리 를

제11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

학교	한글	대한외국어대학	성명	한글	주동양	생년월일	1997년 11월 25일
	영문	Daelim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영문	Zhou Dongyang		학년
							4학년

진작 할 수 있느냐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의
 행동이나 말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한 자신의 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평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와주
 면서 잘 지내느라 지내느라 애
 나라곤 평화롭게 지내느라 애
 모하다. 중국과 한국은 바다사이 에
 바다보느라 가까이 이웃이다. 양국 국민이
 수천년전부터 심호한 우정을 맺어 오
 늘까지 손에 손잡고 걸어왔다. 어느
 명한 철학가는 이런 말을 했다. 1천년
 은 국가는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다리이다. 21세기의 신철학은, 우리
 한국의 청년과 같은 젊은이들을 조성해야
 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공동준미' (求
 同存異)라는 사자성어처럼 공동점을 찾
 고 차이를 보류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
 의 우정을 더 깊게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양국
 민의 마음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면 우
 리 이웃나라간의 정은 더욱 튼튼해지고
 사회도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
 고 굳게 믿고 있다.

제1회 공공성 구분 배치장

[illegible][illegible]